

# 슈퍼마켓·식당·여관 3無

# 잠재력·가능성·열정 3有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고흥 연흥도 마을 전경. 주민 감소로 곳곳에 생겨난 빈집을 외지인들이 구입하고 있다. 슈퍼마켓, 식당, 여관이 없는 연흥도를 거주하는 주민과 찾아오는 외지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절실하다.

## '블루오션' 다도해 <25>

###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 고흥편 - 연흥도·하화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에 있는 미술관 '연흥도미술관'. 지난 2013년 태풍 불라벤 이후 휴관중이며, 최근 재개관 논의가 한창이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소록도와 우주센터가 들어선 나로도도 고흥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륙과 함께 섬을 가진 고흥의 속살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관광도시로 부상한 여수, 수산물의 보고인 완도와 해남 사이에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 섬이다. 특히 고흥이 가진 21개의 유인도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선착장, 도로, 숙박 및 편의시설이 크게 미흡하지만, 그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난 8월 11일 오전 9시 30분 고흥 북동항을 출발한 취재진은 오전 10시 거금도 옆 연흥도에 도착했다. 연흥도는 '섬 속의 섬'이라는 명칭과 섬 가운데 유일하게 미술관을 가지고 있어 유명세를 탔다. 지난 2009년 소록대교, 2011년 거금대교가 개통되기 전 연흥도는 가보기 힘든 곳이었다. 북동항에서 거금도까지 선박편으로 간 뒤 다시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연륙·연도 덕분에 한층 접근성이 높아지고 민선 6기 전남도의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지고 있다.

선착장에 채 도착하기 전부터 섬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 높은 벽화와 시화, 벽걸이 화분 그리고 금산초등학교 연흥분교가 1998년에 폐교되면서 갈 곳 없어진 이 섬 출신 군수의 공적비도 보였다.

섬에 닿으니 선착장 바로 앞에서 말린 고추를 다 들고 있던 노부부가 취재진을 반겼다. 연흥도 토박이 김연배(80) 할아버지와 거금도 출신 이양엽(78) 할머니.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아들 2명과 손자·손녀 4명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아간다는 이들 부

#### 해안선 4km 아담...미술관 있는 섬

#### 개발 손길 못 미쳐 도로 등 미흡

#### 소록·거금대교 개통 접근성 향상

#### "섬 발전 위해 땅이라도 내놓겠다"

#### 주민들 '가고 싶은 섬 사업' 기대

부는 57년을 연흥도에서 함께 보냈다. 고기도 잡고, 발농사도 지었던 김 할아버지는 70대 후반 기력이 떨어지면서 발농사만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아들들이 용돈을 보내오니 그러저럭 지낼 수 있다"며 "가을에 오면 먹을 것이 좀 있을 것인데"라고 취재진을 격려했다. 특산물 소개를 부탁하자 툇과 미역이라고 답했다.

선착장에는 김길호(66)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위원장도 마중을 나왔다. 연흥도에선 '젊은이'인 그는 이창에 이어 추진위원장을 맡아 섬 발전을 이끌고 있다. 사실 연흥도는 거금도와 완도의 금당도 사이에 있는 0.55km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가 고작 4.0km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 135호가 거주할 정도로 북적였던 이 섬은 현재 52호 82명으로 크게 줄었다.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부부나 독거노인이다.

노동력이 필요한 지주식 생강산으로 유명했지만, 젊은이들이 떠나가면서 포기했고, 고대구리(코가 작은 그물로 불법 어로를 하는 방식)가 금지되면서 어업 역시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다시 물로 나가는 주민이 늘었다. 김 위원장은 이것저것 설명하며 연흥도미술관으로 취재진을 이끌었다.

연흥도의 유일한 관광자원이자 숙박시설인 이 미술관은 지난 2013년 태풍 불라벤에 직격탄을 맞고 현재 휴관중이다. 개인이 운영하다보니 만신창이가 된 미술관 앞마당을 다시 꾸밀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녹슨 칼을 들고 있는 이순신 동상은 이곳이 학교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술관 입구에 선포남(54) 관장이 서있다. 고흥의 민예총 사무국장이었던 그는 폐교된 연흥분교를 임

차해 미술관으로 꾸민 김정만(80)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미술관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양화가인 선 관장은 "내부시설은 별 이상이 없으나 예약받기가 미안해 휴관하고 있다"며 "섬에 있는 유일한 숙박시설이어서 외지인들이 오면 방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술관은 숙박시설과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작가 131명이 기증한 것으로, 휴관 전 선 관장은 계절에 맞춰 전시 작품을 교체했었다.

연흥도는 3가지가 없는 섬이다. 슈퍼마켓, 식당, 여관이 그것이다. 외지인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외지인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륙대교 있는 거금도에서 1km 남짓 거리에 있어 7차례 여객선이 왕복하고, 필요하면 마을 배로 거금도에 나갈 수 있을만큼 접근성은 높지만,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미술관을 나와 마을을 한 바퀴 돌았는데, 군데군데 빈집들이 보였다. 전남도의 '2015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이 빈 집들은 높은 가격에 외지인들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일부 개조해 수익 사업으로 민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빈 집 소유자나 개발업체들이 주류가 돼 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섬의 자연 그대로를 보존·유지하면서 지붕 색을 통일하는 등 섬 전체를 하나의 관광자원화 및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주민들의 참여율도 그 어느 섬보다 높다.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실시된 4박5일 주민교육 프로그램에도 주민 40여 명이 참여했고, 일부 주민은 섬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투리땅이라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날인 8월 12일 27명의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위원들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들 역시 주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모두 싸들고 올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과 선 관장은 설명했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으며, 지난 2014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주변 바다가 더욱 깨끗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작은 섬 '하화도'

#### 자매결연 중국 위해 '동흥도' 개칭

전남의 모든 섬은 텅 빈 학교가 고민거리다. 연흥도처럼 미술관이 되는 폐교가 되는가하면 고흥 하화도처럼 펜션으로 개조한 곳도 있다. 고흥에도 여수와 똑같이 상·하화도가 있는데, 이들 섬의 공통점은 작고, 과거 꽃으로 유명했다는 정도다.

지난 2012년 펜션으로 변신한 분교 앞에는 반공소년 이승복과 류관순 열사의 동상이 서 있다. 그 옆에는 고흥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광저우시 동흥시와의 인연을 강조한 기념석이 있다. 지난 2014년 7월 26일 고흥군은 동흥시에 이 하화도를 '동흥도' (사진)라고 개칭해 '선물'했고, 동흥시는 시내 중심도로를 '고흥대로'라고 개칭하며 화답했다. 19호 40명의 주민이 사는데, 겨울에는 굴, 여름에는 반지락을 캐 생계를 잇고 있다. 썰물 때면 상화도를 도보로 갈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